

할리우드 영화사들 인터넷 영화 VOD 시장진출의 배경과 의의

문 주 영*

News

미국 할리우드의 MGM (Metro-Goldwyn-Myer), Paramount Pictures, Universal Studios, Warner Brothers, Sony Pictures Digital Entertainment 등 5대 메이저 영화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다 운반하는 주문형 비디오(VOD)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합작벤처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Plus

1. VOD 서비스를 위한 합작벤처 출범의 배경

5대 영화사들의 소비자 청구 역할을 하게 될 이 서비스는 아직 정식 명칭이 붙여지지는 않았지만 Sony Pictures 가 1년여 동안 컨설팅 펌인 Viant와 함께 개발해온 VOD 서비스인 MovieFly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다. 보안은 InterTrust사의 암호화 기술을 이용할 계획이며, 빌링 시스템은 이미 Verisign과 Mountain View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 서비스가 시작 되면 언제든지 수 만편의 영화 중 원하는 작품을 골라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 받아 일정한 기간, 횟수 이내에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인터넷상에서 비디오 대여점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영화사들은 불법사이트를 통해 복제된 영화가 영화시장을 잠식할 것을 우려해 영화의 디지털본을 인터넷상에서 배포하는데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나 이들이 직접 VOD 서비스에 나서게 된 데에는 인터넷 음악시장에서의 냅스터 문제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냅스터가 인기를 끌 무렵, 소비자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음악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 받을 대안적인 서비스가 없었다. 음반사들이 인터넷 음반시장의 진입을 두고 시간을 끌 때 냅스터가 인터넷 음악의 복제판 유통을 장악하여 이들이 본격적인 시장진입도 하기 전에 시장의 기반이 약화시킨 사례를 교훈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영화사들의 이런 움직임은 불법복제관이 인터넷에서 더 활개를 치기전에 인터넷 영화의 배

*정보통신산업연구실 연구원 • E-mail : jymoon@kisd1.re.kr

급을 양성화하고 해적판보다 먼저 소비자 시장을 선점하여 해적판 영화의 유통을 막아보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더우기 다운로드된 파일의 복제를 막는데 필요한 보안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 검증을 받자, 영화사들은 인터넷사업으로 진출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었던 보안이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영화를 가정이나 직장의 컴퓨터까지 유통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들 스튜디오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현재 미국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가정이 천만 가구이며, 학교, 기업을 합치면 이미 3천 5백만 정도의 컴퓨터가 초고속화면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있다. 양키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말까지 3,100 만 가구가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영화사들은 이 정도 수치면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영화를 디지털로 배급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만큼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여기고 있다.

2. 운영 방식

전통적으로 영화배급은 극장에서 최초 개봉을 한 후, 비디오, DVD, pay-per-view, 유료 케이블 방송, 공중과 방송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5대 영화사들의 인터넷 VOD 서비스는 pay-per-view 단계에서 제한된 수명으로 제공되어 기존 수익사업과의 충돌도 어느 정도 피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제공되는 영화의 가격결정은 각각의 영화사가 배급영화의 가격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며, 이들의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여러 다른 회사에 비배타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합작벤처는 케이블사들간의 합작 벤처였던 Premier¹⁾가 지나간 실패의 길을 피하고자 하고 있다. 아직은 어떤 식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할 지에 대해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으나 주요 수요자들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나 포털, 인터넷업체 등이 될 것이다.

Analysis

1. 업계에 미칠 영향

이 합작벤처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최초의 VOD 서비스는 아니다. 제한적이거나 이미 케이블 방송

1) Premiere 는 Getty Oil, Universal, Paramount, Twentieth Century-Fox, Columbia Pictures 등이 설립하려는 합작 벤처로 1981년 독점법 위반의 혐의로 연방판사의 사전 금지명령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무산되었다. The Justice Department는 9개월간의 독점적인 계약조건이나 가격 고정 등을 독점을 시도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들 영화사들을 고소하였다.

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도 CinemaNow나 SightSound Technologies와 같은 기업들에 의해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합작벤처가 준비하는 이 서비스는 할리우드 영화사들이 직접 보유한 방대한 영화를 스스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최초의 시도라는데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VOD가 고객이 원하고 영화업체들이 가야될 대세라는 것을 영화사들이 다시 확인하였다는데 있다. 스튜디오들은 이번 합작의 설립이 소비자에게 중간상없이 직접적으로 영화를 공급하고 극장상영 이후 영화 보급의 단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는 것이다.

영화사들의 합작벤처를 통한 VOD 제공 선언은 아직 VOD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은 다른 업체들에게 압력이 될 것이다. 실제 메이저 영화사중 이번 합작벤처 출범에 참여하지 않은 디즈니와 20세기 폭스사는 따로 제휴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으며, 디즈니는 Viacom과 함께 VOD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비디오 렌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Blockbuster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Blockbuster는 이 합작벤처의 설립이 홈 비디오 대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²⁾ 그러나 Forrester의 전망은 이와 다르다. 만약 VOD가 디지털 케이블로 보급된다면 영화 보급의 윈도우³⁾를 재배치하게 될 것이며 또한 2006년 경에 1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비디오 대여 시장을 VOD가 대체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Blockbuster는 Enron Broadband와 함께 독자적으로 VOD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올 초 계획이 무산된 적이 있다. 따라서 이제 Blockbuster가 VOD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영화의 디지털 배급 사업에서 완전히 낙오될 위험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화 파일에 수명을 부여하여 기존 수익사업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일단 VOD서비스가 시작되면 DVD 판매나 케이블 TV, 비디오 대여 등 기존 수익사업과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 향후전망

이 합작벤처의 시도가 다른 업체들의 VOD 서비스보다 높은 성공가능성은 지녔지만, 이들도 모든 인터넷업체들이 가진 근본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다. 우선,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컴퓨터를 통해 다운 받아볼 것이냐 하는 것이다. Forrester는 PC 스크린에서 영화를 보는 경험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홈씨어터 DVD로 영화를 보는 경험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

2) Blockbuster의 모기업인 Viacom은 이 합작벤처에 참여한 MGM과 Paramount사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MGM과 Paramount는 pay-per-view단계에서 인터넷영화 VOD를 실시하도록 다른 참여업체들을 설득해 홈비디오 시장의 이윤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3) 한편의 영화가 제작되면 이를 시간적으로 차별화하여 소비시장에 유통시키는데 극장, 케이블, 비디오 등 각각의 소비시장을 윈도우라고 한다.

